

# 4월 전북 수출 7억2,631만달러 `미국 최대 수출국`

중국 봉쇄 영향, 상승폭 제한적  
무역수지 1억6,663만 달러 흑자

박상래 기자

농약과 의약품, 합성수지, 동제품이 높은 수출실적을 기록하면서 4월 전북지역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7.3%가 증가한 7억 2,631만 달러로 집계됐다. 도내 산품 수출이 중국보다 미국 수출이 앞선 것은 2006년 이후 처음이다. 4월까지 누적 기준으로 미국이 전라북도의 최대 수출국으로 기록됐다.

한국무역협회 전북지역본부가 26일 발표한 "2022년 4월 전라북도 무역동향"에 따르면, 전북지역 4월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7.3%가 증가한 7억 2,631만 달러, 수입은 7.2%가 증가한 5억 5,968만 달러로 집계됐으며 무역수지는 1억 6,663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품목별로는 농약 및 의약품, 합성수지, 동제품이 높은 수출실적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약 및 의약품(5,934만달러, -20.6%)은 기존 최대 수출시장인 브라질로의 수출은 감소했으나 방글라데시,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지역으로 수출이 증가하며 최대 수출품목으로 기록됐다. 합성수지(5,933만달러, 0.4%)는 중국 수출이 감소(-12.5%)했으나 미국 수출이 크게 증

가(89.4%)하면서 전년 수준을 유지했다. 동제품(5,851만달러, 14.2%)의 경우 중국(2,149만달러, 51.4%), 미국(954만달러, 173.9%) 양 시장 모두 큰 폭으로 상승하며 견조한 상승세를 견인했다. 국가별 수출실적에서는 중국의 감소세와 미국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미국(1억 5,740만달러, 47.8%)은 농기계(3,877만달러, 55.4%), 건설광산기계(1,092만달러, 27.7%), 합성수지(1,058만달러, 89.4%) 등 주력 품목이 모두 상승하며 최대 수출 시장으로 기록되었다. 중국(1억1,448만달러, -16.3%)은 동제품(2,149만달러, 51.4%), 종이제품(1,948만달러, 13.4%)의 수출은 증가했으나 합성수지(1,503

만달러, -12.5%), 정밀화학원료(790만달러, -60.0%)와 같은 품목 수출이 부진한 영향으로 수출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과 중국에 이어서는 베트남, 일본, 이탈리아 순으로 수출실적을 기록했다. 박준우 한국무역협회 전북지역본부장은 "코로나19로 중국의 도시 봉쇄가 이어지면서 우리 기업들의 수출에도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4월까지 누적으로 미국이 전라북도의 최대 수출국가인데, 미국 수출이 중국을 앞선 것은 2006년 이후 처음"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중국의 도시 봉쇄가 완화되고, 경제 회복에 나서면서 대중국 수출은 점차 회복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경제브리핑



## 전북은행, 상호협력 업무협약 보이스피싱 범죄예방 나선다

전북은행은 지난 25일 전북교통방송과 전북지방경찰청, 전라북도자치경찰위원회와 함께 보이스피싱 범죄예방을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전북은행 서한국 은행장, 전북교통방송 이성장 사장, 전북지방경찰청 배대의 수사부장, 전북도자치경찰위원회 이형구 위원장 등이 참석, 갈수록 진화하는 금융사기를 사전에 근절하고 누구에게나 안전한 금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북은행은 보이스피싱 범죄로부터 고객들의 소중한 자산을 보호하고 금융피해 예방을 위해 이번 협약에 참여했으며 향후 보이스피싱 범죄예방을 위한 홍보협력, 의심사례 신고 등 피해예방 관련 프로그램 및 캠페인 방송 등에 상호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서은행장은 "서민의 삶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금융사기 예방을 위해 더욱 세심한 사회적 배려와 안전망 확충이 필요하다"며 "전북은행은 금융사기 모니터링 시스템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예방교육을 펼침으로써 금융으로 더 따뜻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일 기자

## 국민연금, '18년 연속' 우수콜센터 선정

국민연금공단은 26일 '국민연금 1355 콜센터'가 '2022년 한국산업의 서비스품질지수(KSQI)' 조사에서 18년 연속 '한국의 우수콜센터'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서비스품질지수(KSQI)는 54개 산업, 329개 기관과 기업의 콜센터를 대상으로 업무처리, 상담태도 등 콜센터 서비스 품질을 평가하기 위해 한국능률협회컨설팅에서 매년 실시하는 평가이다.

공단은 서비스 품질 영역에서 91점을 받아 2005년 이후 '18년 연속'으로 '한국의 우수콜센터'로 선정됐다. 조사항목별로는 '서비스 상담태도'에서 100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획득했으며 서비스 업무처리(99점)와 종료태도(98점) 등 서비스 품질 영역 전반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공단은 그간 상담 수요자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에 중점을 두어 다양한 상담 채널을 운영하는 등 상담 서비스 개선을 위해 힘써왔다.

청각언어 장애인에게 전문수어상담사를 통한 영상수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해 상담을 받기 위해 수어통역사와 함께 상담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개선했다. 또한, 국민들이 더 편리하게 콜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채팅상담 서비스와 24시간 챗봇상담 서비스 등 비대면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박정배 이사장 직무대행은 "이번 18년 연속 우수콜센터 선정은 공단이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고품질의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국민 중심의 신속하고 정확한 업무처리를 통해 국민에게 사랑받고 신뢰받을 수 있는 기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상래 기자



## 전주농협, 로컬푸드·하나로마트 효자점 개점

식자재·생필품·문구 코너 등 새롭게 마련... 물품도 다양하게 준비

전주농협이 26일 농협전북본부에서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 판로확대를 위한 '로컬푸드&하나로마트 효자점' 개점식을 가졌다.

이날 개점식은 임인규 조합장 및 임원, 대의원, 영농회장 등 전주농협 내부 조직장을 비롯해, 정운천 국회의원, 정재호 전북농협 본부장, 관내 농축협 조합장, 윤방섭 전주상공회의소회장, 전북도의원, 전주시의원, 외부인사 등 300여명이 함께하며 우리농산물 판매 확대를 염원했다.

지난 20일 오픈한 '전주농협 로컬푸드&하나로마트 효자점'은 지역주민의 관심 속에 오픈 첫날부터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다. 약 400평 규모의 매장에 다양하고 신선한 농축산물과 공산품을 비롯해 수산물 코너를 새롭게 선보이며 소비자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 로컬푸드 매장이 흡인속 형태로 운영되어 지역 농업인 등이 생산한 신선하고 안전한 우리 농산물도 만나볼 수 있다.

전주농협은 기존 운영방식과 차별화를 위해 리모델링을 통해 판매 공간을 넓히고, 주변 상권과 유동인구 특성을 분석해 식자재·생필품·문구 코너 등을 새롭게 마련하고 물품도 다양하게 준비했다. 더불어, 영업시간도 유동인구가 많은 주변 여건을 반영해 오전 7시에서 오후 9시로 늘

려 운영하며, 판매장 레이아웃 재조정으로 고객에게 편의성과 즐기는 쇼핑문화 서비스 제공으로 우리 농산물 소비를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매장 인근에는 전북농협과 전북도청, KBS방송국, 전주상공회의소, 각 정당 등 공공기관을 비롯해 주상복합아파트, 다세대주택, 원룸 등이 위치해 평소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라서 홍보 및 우수상품 진열 시 고객 확보 및 활성화에 유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주농협 임인규 조합장은 "로컬푸드&하나로마트 효자점을 통해 농민 조합원이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우선 취급하여 지역농가들의 판로 확대에 힘쓰고, 시민들에게는 신선한 먹거리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이를 통해 전주농협은 소비자인 도시민과 생산자인 농민 조합원 모두에게 환한 웃음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상래 기자

## 농촌진흥기관 공직자, 농번기철 업무 전문성 발휘해 영농 지원

농번기를 맞아 중앙-지방 농촌진흥기관 지도직 공무원들이 업무 전문성을 발휘해 영농 지원에 나섰다. 농촌진흥청은 지난 20일 '한국농업전문지도연구회' 회원들로 구성된 현장 기술지원단이 충북 옥천군 일원에서 맞춤형 기술 지도와 일손 돕기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한국농업전문지도연구회는 중앙-지방 농촌지도직 공무원들로 구성된 품목별 연구 모임체이다. 이번 영농 지원에는 옥천군의 대표 작목인 포도, 복숭아, 사과, 딸기 4개 품목 연구회원 60여 명이 참여했다. 회원들은 농가에서 필요로 하는 영농 기술을 파악하고, 현장에서 고민하는 문제 해결책을 제시한 데 이어 농번기 영농 작업을 도왔다.

한국농업전문지도연구회협의회 정기영 회장은 "농업·농촌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 수준 높은 농촌지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연구회원들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박상래 기자



## 조달청장, 군산비축기지 찾아 공급망 관리실태 점검

"비축 원자재 방출량 확대할 것"

조달청 이종욱 청장은 26일 군산시에 소재한 정부 비축기지를 방문해 원자재 비축과 수급 현황을 점검했다.

이번 방문은 글로벌 공급망 위기 상황에서 알루미늄, 구리 등 주요 원자재의 비축, 방출 상황을 점검하고 원자재 공급과 관련한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청장은 이날 군산 비축기지 현장을 직접 둘러보며 비축된 희소·비철금속 등 전략물자

비축현황을 점검하고 대외의존도가 높은 원자재 품목에 대한 수급방안을 논의했다.

비축기지 점검에 이어 조달청이 비축 중인 원자재를 이용하고 있는 수출 유망 강소기업인 하이테크검속을 찾아 원자재 공급망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기업 관계자는 "정부의 비축 원자재 방출량 확대, 외산-대여 등을 통한 유동성 지원은 원자재 수급-가격이 불안한 시기에 큰

도움이 된다"며 지속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 청장은 "최근 공급망 불안 지속으로 원자재 가격 상승을 비롯한 수급 불안 요인이 해소되지 않은 가운데 정부비축 기능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면서 "비철금속 비축 규모 확대, 국민 생활과 밀접한 경제안보 핵심 품목의 신규비축 추진과 함께 공급망 불안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종일 기자

## 국내 최초 5층 PO필름 연구용 생산설비 구축

미래농업을 말하다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서태철 농업연구관

일본산보다 광투과도와 내구성 우수  
토마토 현장 농가 적용 시 생산성 증대

국내 최초 PO필름 연구용 설비를 구축하고 시제품 생산과 현장 적용으로 시설원예산업의 경쟁력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서태철(사진) 농업연구관은 국내 최초로 농업용 장기성 다층 PO필름 연구용 생산설비를 갖춰 향후 다양한 기능을 갖춘 다층 PO필름 연구·개발을 가속화 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했다. 구축된 기반을 시제품 개발에 활용하면 상업용 생산시설을 이용하는 것보다 연간 51억 원의 시범비용을 절감

하고 제품개발에 필요한 업체의 기술적 접근을 용이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 농업연구관의 연구배경을 보면 농가 현장에서 일본산 PO필름의 가격이 1.2~1.5배 더가임에도 불구하고 국산 PO필름에 비해 사용 비중이 높다는 것이다. 그동안 농립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 그리고 필름업체에서 국내산 PO필름의 품질을 높이고자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미흡한 실정이다. 투명성이나 보온성 등은 대등한 수준이나 내구성과 유적성 면에서 국산 PO필름이 일본산 PO필름에 비해 60%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유적성은 비닐하우스에서 내외 온도차에 의해서 생기는 물방울이 지면에 바로 떨어지지 않고 필름 안쪽 표면을 따라 흘러내리는 특성을 말한다.

이러한 유적성과 내구성이 우수한 PO필름은 5층의 다층 필름으로 국내에서는 한 업체에서만 생산하고 있다. 주요 생산 설비와 코팅액은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일본산 수준의 품질이 우수한 농업용 장기성 다층 PO필름 개발이 절실하다. 이러한 연구를 위해서는 연구용 생산설비(파일럿 설비) 구축과 원료수지, 첨가제, 코팅액, 부착력 증진 기술, 시제



품 필름, 그리고 현장 적용의 과정이 필요했다. 특히 다층 PO필름 연구용 생산설비는 국내 최초로 5개의 압출기, 덤코팅 방식의 코팅기, 존 터널(Zone Tunnel) 방식의 건조기와 와인더를 갖추고 있다. 제품 생산 폭은 폭 750~1,500mm, 두께 0.06~0.2mm의 다층 필름을 생산할 수 있는 사양을 갖췄다. 각 파트별 세부조성과 변경을 통해 전 과정을 점검했고, 수지 흐름성 불안정, 버블 불균형, 결빙선 높이 조절 등 문제점 개선 위한 설비를 미세 조정했다. 그리고 원료수지, 첨가제의 적정 배합비 개발 실험을 통해 실린더, 다이(필름 성형 틀) 온도, 스크류 회전 속도 등 생산조건을 확립했다. 이러한 파일럿 규모의 여러 가지 조건을 상업용 5층 양산 시설에 적용해 농가 피복용 시제품을 생산했다.

현재까지 농가에 적용해 본 개발 필름은 시판중인 일본산 필름보다 광 투과도가 높고 내구성이 좋아 방울 토마토와 참외의 생육이나 수량이 우수한 성과를 보였다. 이 연구를 통해 일본산 PO필름과 대등하거나 그 이상의 품질을 갖춘 PO필름 개발이 가능해 농업용 장기성 필름 소재(수지, 첨가제, 코팅액 등)의 국산화를 통한

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농가 현장 적용을 통해 국산 PO필름의 효과가 입증되면, 국산 필름 보급률이 현재의 50% 수준에서 2~3년 내에 70% 이상으로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19년 12월 '일본산 PO필름 점유율 60%'라는 국회의원들의 지적 이후 농촌진흥청에서는 국내 대표적인 필름업체, 학계, 연구소, 산업관련 전문가 등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일본산과 버금가는 필름 개발을 목표로 2020년부터 3년간 59억 원의 연구예산을 투입해 공동연구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서 농업연구관은 "연구용 생산설비 구축을 위해 이탈리아 등 선진국의 압출기와 다이 설비를 벤치마킹하려고 했으나 코로나 등의 상황이 발생해 여의치 않았다"며 "국내 관련업체와 오랜 시간 협의하고 논의하는 과정을 거쳐 압출기와 다이를 완성했으나 앞서 언급한 문제점이 발생해 여러 번의 미세조정 과정이 필요했다"고 힘든 과정을 설명했다.

서 농업연구관은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빠져 있던 사업을 추진했다는 이유로 과기부 특장평가 대상과제가 돼 2022년 예산 삭감 조치까지 있었다"면서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원료수지, 첨가제, 코팅액, 부착력 증진 등 부분별 연구진들의 협력으로 연구용 생산설비를 완성했고, 이를 통해 시제품을 생산해 농가에 설치하는 과정까지 이뤘다"고 말했다. /박상래 기자